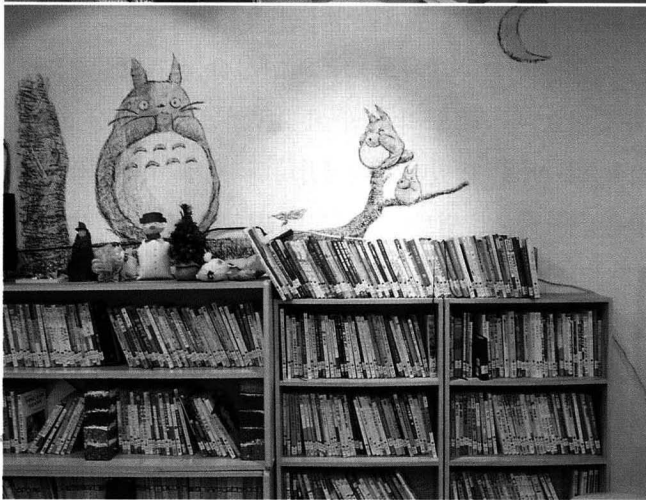


## 우리집 꼬마 독서광이 좋아하는 놀이터를 소개합니다



일산 신도시 저동초등학교 앞 밤가시마을에 있는 숲속작은도서관.



일산 신도시 성저마을에 있는 웃는책.

주부와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일산신도시에 새로운 교육공간이 생겨 눈길을 끈다. 경직되고 어려운 느낌이 들어 부담스러웠던 공공도서관을 대신해 놀이의 연장선에서 독서 공간을 마련한 어린이도서관이 그곳이다. 책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시선을 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시설 어린이도서관 두 곳을 소개한다.

일산 저동초등학교 앞 밤가시마을에 위치한 '숲속작은도서관'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자연과 미디어 세상'을 표방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법까지 가르치면서 미디어를 통한 문화교육을 활발히 진행한다. 숲 속에 온 듯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공간에서는 독서광을 꿈꾸는 책벌레들부터 개구쟁이 친구들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시청각 자료와 도서 자료, 미술교육 자료 등을 만날 수 있다.

"2001년 7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아이를 위한 책을 많이 구입하는데 그 도서를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군요."

여성지 기자활동과 출판 관련 일을 하며 책과 인연을 맺은 백창화 관장은 이곳을 아이들의 놀이터 겸 교육의 장으로 꾸미고 싶다고 말한다. 50평 규모의 도서관에서는 정기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는데 비디오, 게임 등 영상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 프로그램, 선생님이 영어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은 오디오북을 들으며 진행되는 영어동화 읽기 등의 프로그램들이 그것이다. 선생님이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도 주어진

다. 매주 수요일에 이루어지는 ‘얘들아, 책 읽어줄게’ 시간에는 선생님이 좋은 우리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오디오북, 멀티북을 활용해 동영상 책읽기를 하기도 한다.

“2,500원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5,000권이 넘어갑니다.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힘든 부분이 많긴 하지만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책을 만나러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죠.”

이곳에서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에 가족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한다. 유아에서 초등학교까지 전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감동적인 명화 등을 상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축하는 ‘숲속작은도서관’은 부모들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책의 의미를 가르치고 독서 지도의 방향을 제공해준다.

‘숲속작은도서관’과 비교할 때 역사가 있는 ‘웃는책’은 일산신도시 성저마을 부근에 있는 아기자기한 아이들의 쉼터다. 4년 전에 37평 정도 되는 이 공간을 마련한 김소연(시인) 관장은 8년 정도 신도시에 살면서 문화공간이 없다는 데 의문을 가졌었다고 말한다.

“제가 글을 쓰고 있고,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책을 매개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웃는책’의 특징은 어머니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도서관을 꾸미고, 이끌어나간다 데 있다. 어린이, 어머니 자원봉사대와 독서모듬 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김 관장을 주축으로 구성된 어머니 독서모듬은 오프라인 서점인 YES24의 웹진 ‘북키앙 BOOKIAN’에 어린이책 서평을 연재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못지 않게 아이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방과 후 스스로 도서관을 찾아서 대출관리, 도서 정리 등을 하는 자원봉사원 친구들은 ‘웃는책’의 공간을 스스로 찾고 가꾸려고 노력한다. 그림책, 애니메이션 등에 나오는 캐릭터를 그려 벽면을 장식한 아이들의 정성이 눈에 띈다. 공간 자체가 동화적인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꾸며진 만큼 김 관장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말한다. ‘리디아의 책 읽어주는 시간’도 그 중 하나인데 동화 속 주인공처럼 꾸미고 나온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책을 전하는 이 시간을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고 기다린다.

“단순히 도서관을 운영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죠. 지난번에는 여기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시민영상제에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웃는책’은 일산 지역 아이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아이들과 어린이책에 관심이 많은 어른들이 함께 소통하는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www.gigglingbook.net). 동화 작가를 소개하거나 매 달 주제를 정해 어린이책을 소개하는 코너 등이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둔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졸업까지 시킨다는 김 관장은 중학생이 된 후 교복을 입고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청소년 공간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올 6월 경 ‘웃는책’과 청소년 공간이 합쳐져 즐겁게 웃는 교육의 장이 새롭게 마련된 예정이다.

부모님, 학생들이 게릴라식으로 꾸미는 자생적인 공간. 내 집 놀이터처럼 편안하고 즐겁게 책을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의 쉼터. 어린이도서관은 내 집 같은 편안함과 자유로움 속에서 책을 만나는 여유를 선사하는 아이들의 건전한 놀이터로 거듭날 것이다. **☞**



어린이 눈에 맞춘 숲속작은도서관의 책꽂이.



숲속작은도서관의 미디어교육 자료들.



동화 속 그림으로 벽면을 꾸민 웃는책.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워주는 웃는책.